포교원, 첫 포교결집 순례…'도심포교' 기치

2월 27일 포교원력 결집 순례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스님과 300여 포교사들 참여해 발원
봉은사서 미타사 5.8km 행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필두로 불자들이 강남도심을 순례하고 있다.

"우리는 포교사, 한국불교 지킴이, 수행은 포교, 포교는 수행!"

"스님을 모시고 도심포교에 나서자!"

한국불교 도심포교의 중심인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포교사들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방식의 전법포교가 중단된 3년 만에 포교현장 일꾼인 포교사들이 뭉쳤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2월 27일 포교사단(단장 김영석)과 서울 강남 봉은사부터 강북 미타사까지 '전법ON, 포교원력 결집을 위한 포교사 걷기 순례'를 개최했다.

이날 순례에는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및 인천경기지역단 300여 포교사들이 참여해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개발한 도심 순례길인 허응당 보우의길을 걸으며 새해 도심포교 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입재식에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3년 만에 이뤄진 포교일꾼들의 결집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범해 스님은 "각 분야의 포교결집 중 포교사단과 첫 번째 행사를 갖는 이유는 포교사들이야 말로 한국불교 전법 포교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수행을 통해 전법 포교의 마음을 가다듬고, 불자로서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달라. 순례는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단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매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종단에서 만든 순례길을 포교사들이 처음으로 걷게 됐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전법포교에 나섰지만 함께 수행하고 이를 통해 원력을 쌓는 기회는 드물었다"며 "13개 지역단이 각 교구본사 스님들을 모시고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행활동이 함께 이어지는 전법행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포교사들은 포교부장 선업 스님의 구호 선창에 따라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행선은 묵언으로 스마트폰 사용 등도 금지됐다.

강남 봉은사를 출발한 포교사들은 청담역과 압구정역을 거쳐 동호대교를 지나 옥수동에 위치한 미타사까지 5.8km를 2시간여 동안 걸었다. 당초 예상한 1시간 여보다 신호대기 등으로 지체됐지만 행선에는 무리가 없었다. 포교원 측도 이날 순례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봉은사부터 조계사까지의 보우의길 중 절반만 소화하도록 했다.

순례에 참여한 포교사들은 순례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전법도반들의 모습에 더욱 큰 힘을 받았다고 소감을 풀어놨다.

박은호 인천경기지역단 수석부단장은 "2년 반만에 도반들을 만나니 기쁘다. 포교활동하면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실내가 위주였다. 대중들이 시내서 똑같이 같은 법복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불자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올림픽 불자선수 여러분이 국민 자랑"

3월 2일 최민정 국가대표 등 원행 스님, 범해 스님 예방

동계올림픽선수단은 3월 2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에게 덕담을 들었다.

예방에는 최민정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은정 컬링 국가대표, 원윤종 봅슬레이 국가대표, 탑신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등 선수들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윤홍근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이혁렬 바이애슬론연맹 회장, 김용빈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정광열 빙상경기연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올림픽정신과 스포츠정신으로 맞서서 쾌거를 이뤄낸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선수들에게 단주를 채워주고 템플스테이 체험권, 사찰음식 4인 시식권, 금 한돈 삼보륜 뱃지를 선물했다.

이어진 조계종 포교원 예방에서 108단주와 국가대표선수 기도문 등을 전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메달의 유무를 떠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성북동 길상사 법정스님 12주기 추모

법정 스님 원적 12주기 기일을 맞아 청빈하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는 2월 26일 경내에서 '법정 대종사 12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추모법회는 법정 스님의 마지막 당부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고자 했던 스님을 가르침을 기리는 추모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조계총림 송광사 수련원장 현묵 스님은 추모사에서 법정 스님과의 추억담을 전하고 "스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천하의 법정 스님'이라는 호칭을 듣기까지 스님의 삶은 말 그대로 '철두철미였다'"고 회상했다.

혜총 스님은 법문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되새겼다. 그러면서 "수행과 포교의 삶을 살다 열반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늘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법정 스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법문영상도 소개됐다. '심여수(心如水)'를 주제로 한 참스승의 가르침에 사부대중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임은호 기자



불교스포츠 '17회 달마오픈' 성료

불교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노우보드대회인 달마오픈 챔피언쉽대회(이하 달마오픈)가 2월 27일 용평리조트에서 3년 만에 펼쳐졌다.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사단법인 이웃을돕는사람들이 주관한 제17회 달마오픈에는 많은 이들이 참여해 3년 만에 선보이는 선수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달마오픈 조직위원장 호산 스님(사단법인 이웃을돕는사람들 대표이사)은 "달마오픈은 불교계 최대의 스포츠 대회로, 20여 년간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스노보드를 알리고 우수한 꿈나무를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네팔 출신 설래 스님 "이젠 한국인으로 전법활동"

법무부 2월 24일, 국적증서 수여
"한국불교문화 전파에 힘쓰겠다"



네팔 출신 설래 스님(타망 다와 치링 스님,사진)이 이주노동자 돌봄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설래 스님은 2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2007년 양주 석굴암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온 설래 스님은 서울 정릉 봉국사에서 네팔불자모임을 운영하며 이민자들의 원만한 국내 적응을 돕는 활동을 펼쳐 선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청소년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스님은 2013~2017년 불교스카우트연맹 등에서 청소년 지도법사를 지냈고 '훈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는 등 자기계발에도 힘썼다. 학업에도 열중해 2017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현재 양주 육지장사(회주 지원)에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대중과 어린이 포교, 한국불교문화 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설래 스님은 "한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기쁘다"면서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인터뷰 올림픽 선전 뒤엔 모정불심이

올림픽 금메달 '최민정'·모친 '이재순' 불자

어머니 봉은사서 10년간 봉사
조석으로 선전 기원기도 올려

올림픽 선전으로 국위를 선양한 선수의 뒤에는 오랫동안 뒷바라지해온 어머니의 불심이 있었다.

2월 22일 서울 봉은사에서 만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는 메달 획득의 최고 공로자는 바로 '어머니'라고 했다.

최 선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메달, 여자 1000m와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2018 평창올림픽에 이은 올림픽 2연패이다.

어린시절부터 최 선수의 뒤에는 모친 이재순 씨의 정성이 있었다. 전지훈련 등을 떠나면 기도로 선전을 기원했다. 최민정 선수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오며 재적사찰을 서울 봉은사로 옮겼다. 이재순 씨는 특히 10년 이상 봉은사 종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 올림픽 기간에는 거의 봉은사에 살다시피하며 조석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 씨는 "딸이 부상없이 경기를 치렀고,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었다. 다 부처님 가피"라고 말했다.

최 선수는 "시합에 나설 때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더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다행이 대회가 잘 마무리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성적에 대한 것보다 인터뷰 내내 건강하게 선수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부담이 될까봐 처음 스케이트를 탈 때 마음 그대로 즐기고 오라는 손편지를 써줬다.

최 선수는 귀국 후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곧 있을 몬트리올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해 다시 훈련에 매진한다. 간절한 어머니의 바람과 함께 모녀는 손을 꼭 잡았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등록민간자격(제2018-00234호) 과정

제8기

불교명상지도사 2급 과정 수강생 모집

◈ 대 상 : 명상수행 또는 명상지도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

◈ 수강기간

구 분	교육 (총 15주)	워크숍 (1회)
교육기간	2022년 3월 26일(토) ~ 7월 16(토)	2022년 7월 23일(토)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 9:00 ~ 21: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 수강방법 : 대면 및 비대면(zoom) 강의. 단 워크숍은 대면 출석만 가능
불교상담개발원 대강의실(성북구 개운사 內,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 모집마감 : 2022년 3월 23일(수) 17시

◈ 수 강 비 : 108만원(교육비 98만원 + 워크숍비용 10만원), 카드·분납 가능

◈ 입 금 처 : 국민은행 023501-04-181820,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E-mail(jabi3719@daum.net) 접수
※교육신청서는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특 전 : 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 2급 응시자격 부여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
3. 교육비 할인(스님 40%, 종무원 및 포교사 30%, 본원회원 20%)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전화 02)737-7378 홈페이지 www.kbcd.org 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흥륜사 故 寶珠堂 慧海 노스님 사리친견법회


故 보주당 혜해선사 사리

이차돈 순교지로써 신라 최초 사찰인 경주 흥륜사에서는 2020년 입적하신 寶珠堂 慧海 禪師의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열반 후, 220과의 사리를 남기신 비구니계의 별, 慧海 노스님의 생전 수행을 사리 친견법회를 통해 생전 스님의 사상을 되새기게 될 자리에 걸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기 2566(2022)년 3월 향기로운 날
흥륜사 사부대중 합장

사리함 봉안기념 특별초청법문 : 혜국큰스님 (4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흥륜사 금당 선방
- 기간 : 3월 19일 ~ 31일 까지 (오전 10시~ 오후 5시)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 주관 : 경주황룡원신라문예센터
- 후원 : 국제신문, 부산일보,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BTN불교TV, BBS불교방송, e-붓다, 맑은소리맑은나라
- 문의 : 흥륜사 054.773.3387 / 010.5616.3882